

연말 양돈경기 회복세 전망

정호풍 (본회 지도부장)

1. 머리말

해마다 이맘때면 농민과 정부간에 추곡수매 가격과 수매 물량으로 전통을 겪곤 한다. 올해도 예외없이 이로인한 농민 대회가 대학로에서 11월 29일 개최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최측은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을 방문하는 일들을 진행하는 부산한 움직임이다. 가을걷이도 마쳤고 겨울을 알리는 첫눈도 강원 산간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짐장 담기가 한창이니 이제 농촌은 한숨 좀 돌려야 마땅하나 돌아가는 세류와 대책없는 UR WTO 비준강행은

농축산인들을 고독하게 만드니지는 낙엽 따라 고독이나 음미해보란 말인지. 세계 속의 한국, 한국 속의 양돈산업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 실로 무겁게만 느껴진다.

2. 물가 잡는데 능사나?

94년도는 연초의 돼지 질병과 하절기의 혹서로 폐돈 손실이 매우 커졌고, 그로 인한 절대 공급물량의 감소가 양돈 경기의 폭등을 유발시켰지만, 판매 할 돼지가 없는 양돈농가는 질병 치료비와 인건비만 더 많이

지출되고 실질 소득은 떨어졌음은 수입 돈육의 물량을 보면 짐작이 가는 것이다. 수입 계획이 전혀 없었던 94년도에 2만5천톤이나 수입하였으니 수입 쿼터량이 2만2천톤인 95년도에는 과연 얼마나 수입해 들이고 물가 잡는데에만 급급할 것인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게다가 미국측은 냉장육 유통기간을 현재 돼지 10일, 소 14일로 되어 있는 것을 40일과 100일로 각각 연장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으니 공산품의 수출을 하기 위하여는 정부가 올며 겨자먹기식의 양보가 있을 것도 우려된다. 원래가 냉장돈



〈표1〉 연도별 돼지고기 수입쿼터량

| 구 분 | '94년 | '95년 | '96년 | '97. 1. 1~ '97. 6. 30 | '97. 7. 1 | - | 2004 | - |
|------------|------|--------|--------|--------------------------|-----------|---|------|---|
| 수입 물량 | 개방 | - | - | - | | | | |
| 냉동육(톤) | | 21,930 | 29,240 | 18,275 | | | | |
| 양 허 관 세(%) | 25 | 37.0 | 35.8 | 34.6 | 33.4 | → | 25 | - |

〈표2〉 양축가 사육의향 조사결과(159호)

| 구 분 | | '94. 9 (통계치) | 12 | '95. 3 | 6 |
|----------|------------|-----------------|-------|--------|-------|
| 단순 계산 | 총 두 수 | 6,069 | 6,227 | 6,688 | 6,931 |
| | '94. 9월 대비 | 100.0 | 102.6 | 110.2 | 114.2 |
| 가중 계산 | 모 돈 수 | 767 | 802 | 850 | 873 |
| | '94. 9월 대비 | 100.0 | 104.6 | 110.8 | 113.8 |
| 가중 계산 | 총 두 수 | 6,069 | 6,259 | 6,875 | 7,216 |
| | '94. 9월 대비 | 100.0 | 103.1 | 113.3 | 119.6 |

- 축협 관측자료 인용

육은 시장이 개방되어 있지만, 외국에서 감히 못들어 왔던 것은 그만큼 위험 부담과 물류비용이 냉동육보다 월등히 높은 데서 기인하였음인데, 유통기간을 늘린다면 냉동육의 쿼터량이 문제가 아니고 냉장육이 국내시장을 점유하게 되는 양상으로 전개되므로서 양돈 농민의 현수준 생산비로는 경쟁이 벅찰 것이다.

냉장육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금년에 냉동육을 2만톤에

서 추가로 5천톤 수입 발주시킨 것은 누구와 협의도 없이 정부의 일방적 처사로서 그 시기가 연말 연시에 초점을 맞춘 모양이나 11월의 내림세를 충분히 알면서도 이런 식의 수입 일변도로 물가만 잡겠다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처사가 얄밉다.

3. 소비량과 매물 같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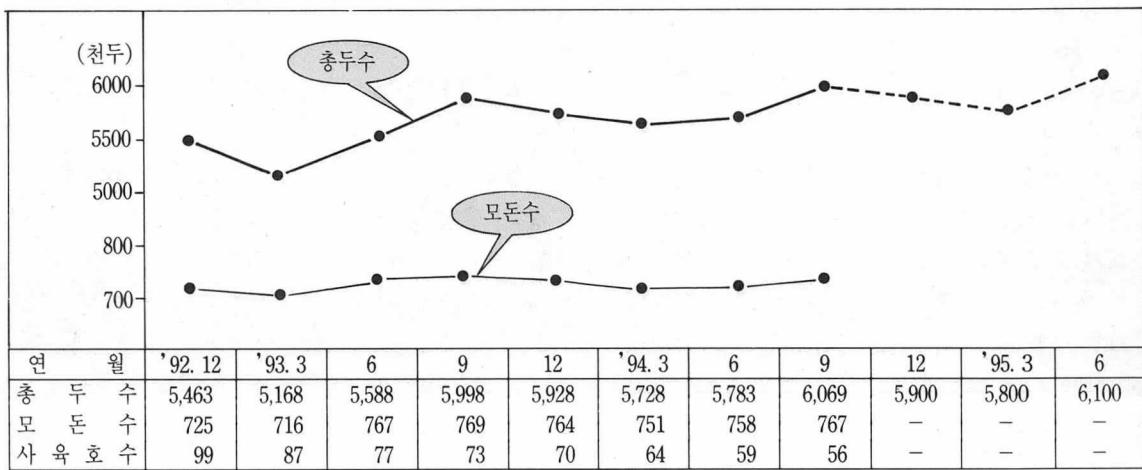
연말(12월)의 출하 대상돈은

여름철 혹서 이전(6~7월)에 생산된 것으로서 혹서의 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은 놈들이며, 10월의 사료 생산량도 만만치 않음(총 42만여톤 생산-잠정 집계)을 보아서 매물이 상당량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연말과 신년초의 성탄절과 설연휴 기간에 높은 소비량을 고려한다면 11월의 하향세는 12월로 접어들면서 회복될 것으로 생각된다.

94년도는 높은 가격 형성이 지속되므로 인해서 양축가들의 사육 열기가 높아지고 있음을 〈표2〉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지만 UR의 파고를 의식하여 미리 겁먹는 영세 양축가들도 매우 많음을 지적하게 된다.

〈표3〉은 95년도 사육두수를 예측하여 본 도표이니 참고 바란다.

〈표3〉 돼지 사육전망



- 축산관측자료 인용